인간관계 마스터키 혼술혼밥

(에스겔 34:1~31)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4.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5.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6. 내 양 떼가 모든 산과 높은 멧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 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인간관계 마스터키 혼술혼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인간관계 마스터키 혼술혼밥'
마스터키란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키입니다. 한편 어떤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일지라도 다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혼술혼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최고의 바이블로 일컬어지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카네기 인간관계론"입니다. 1937년에 초판이 발행된 이래에 지금까지도 인간관계에 대한 책 중에서 고전으로 불리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카네기는 인간관계를 위한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 숫자가 무려 30가지에 이릅니다.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원칙, 인간관계를 잘 맺는 6가지 방법, 상대를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리더가 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인간관계로 보았던 카네기의 관점이 본문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리더가 목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목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목사님이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선지자들만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선민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카네기가 리더가 되기 위한 9가지 방법을 제시했다면 에스겔은 리더와 리더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인간관계서 중에 사크와 존 워드의 “완벽한 관계를 만드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완벽한 인간관계를 위한 6가지 법칙을 제시합니다. 이 6가지 법칙 중에 일부를 예로 들어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면의 현명한 자아와 상위 자아 등의 내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난 다음 행동한다. 두 번째, 어떤 순간에 관계가 어긋나는지 깨닫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감정을 사용한다. 세 번째, 내부 비평가들의 목소리와 다른 부정적인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지만 상대방이나 스스로에게 이런 비판을 하지 않는다. 네 번째, 자신과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한다. 네 번째, 자신과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한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죽어도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인간관계를 해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혼술혼밥이 유행입니다. 이러한 유행이 생겨난 이유는 다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과 같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의 공존이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풍토 때문입니다.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와 같은 시대적 맥락이 일치합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어렵게 여겨지기에 동물에게 친밀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개 한 마리를 키우려면 아이를 키우는 정도로 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손이 필요하고 귀찮은 일이 많지만 관계가 쉽습니다. 들판을 뛰어다녀야 할 개를 집에 가두고 옷까지 입혀가면서 애완견이라는 명칭도 부족해서 반려견으로 격상시켜서 개를 우상시합니다. 개의 엄마와 아빠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 안타깝고 걱정되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어려워하게 된 사회풍토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인간관계가 전혀 어렵지 않다고 본문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완벽하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인간관계가 화평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상대해야 할 관계 중에는 원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수에게는 원수대로, 가족에게는 가족대로, 애인에게는 애인대로, 직장에서는 직장동료대로 상사이면 상사대로 부하직원이면 부하직원대로 취해야할 가장 완벽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완벽한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처가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완벽한 인간관계의 조건이 되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스터키가 바로 신앙적 의미에서의 혼술혼밥입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하던 시기는 이미 선민의 나라가 다 망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민

의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를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선민의 나라에서 발견되는 인간관계의 모습이 이방나라들과 차이가 없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혼술혼밥의 마스터키를 상실한 결과가 멸망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인간관계를 크게 두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일반 백성의 관계, 백성과 백성 혹은 지도자와 지도자들 사이의 동일한 계층들에서 발생하는 관계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총망라하기 위해 크게 두 범주로 나눈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의 관계가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해 양을 잡아먹는 목자의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 앞에 설 때에 굶주린 상태로 서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배고픈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잡아먹어왔습니다. 이러한 배고픔의 문제는 비단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고픈 지도자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과 백성들의 사이에서도 서로 잡아먹고 괴롭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17~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민의 나라에 바라신 것은 이러한 이방나라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선민의 나라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먹거리로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고관대작들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먹거리로 내려주셨습니다.

반려견이라는 말이 무섭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개는 결코 인간의 반려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반려자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나 처자로도 모자라서 애완동물까지 반려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끝에 애완동물까지도 미워하라는 말씀을 추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본래 선민의 나라는 혼밥혼술을 하듯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독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혼밥혼술한다는 말의 보다 구체적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36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들끼리 칼 들고 투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혼밥혼술을 하듯이 하나님을 독대하지 않고서는 가족조차도 관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반려자로 삼는 것입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술을 마시듯이 먼저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취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진 후에야 인간관계 또한 완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배가 고픈 상태에서 가정에서는 배우자를 잡아먹게 되고 자녀를 잡아먹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마음이 고프면 백성들을 잡아먹게 됩니다. 백성들끼리는 서로를 잡아먹게 됩니다. 잡아먹는다는 것은 상대를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배부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장관 판검사 변호사 교수 재벌들 등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공적인 사명을 수행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배부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배고픔이 대부분의 세상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마음이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공직을 수행하기보다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특권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반면에 진정한 사명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 혼밥혼술을 하여 마음의 배가 부르고 취한 상태가 된다면 진정으로 백성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업의 회장님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이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면 회사에 어떤 긍정적 반향이 일어날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만나는 사람들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그들을 먹이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혼밥혼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완벽한 인간관계이고 이상적 나라의 모습입니다. 돈을 들여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땀 흘리며 움직여서 이루어질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혼밥혼술은 골방에 들어가서 한 시간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바쁘면 30분이라도 충분합니다.

이 세상의 인간사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피라미드식 서열구조를 이루어왔습니다. 크게는 사회 전체로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학교 회사 가정이라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작은 피라미드들이 존재합니다. 왕과 백성들 사이에는 수많은 계층들이 있고, 대통령으로부터 9급 공무원까지 수많은 계층들이 있습니다. 재벌부터 자영업자, 전세든지 월세든지 수많은 계층들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예로 들어보자면 총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로 나누어지고 학생들도 학년별로 나누어집니다. 아무리 민주사회가 구현될지라도 수많은 계층으로 나누어진 삶을 산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견 수평적 사회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능률과 성과를 따지는 동안 피라미드적 사회 구조가 형성됩니다.
선민의 나라도 피라미드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왕 때에도 귀족들과 평민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이방나라들의 피라미드 구조와 내부적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피라미드 안에서 움직이는 기운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방나라들에서는 맨 위의 정점에서부터 맨 아래를 향해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작용합니다. 기운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인도는 평균적으로는 생활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부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구 때문입니다. 10억 명의 인구로부터 100원씩만 뽑아내도 천억이 됩니다. 1,000원씩 뽑아내면 1조가 되고 10,000원씩 뽑아내면 10조가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최소한의 경제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본래 선민의 나라는 이 기운의 흐름이 반대인 나라입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 층에 힘이 허락되고 특권이 허락되고 풍요가 허락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으로 혼밥혼술을 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취해서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진 힘과 특권과 풍요가 자꾸만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가장 많이 가졌지만 가장 아래에 있는 계층들을 향해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람입니다. 말 그대로 왕이 백성을 섬기는 구조가 되는 것이 선민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선민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했고 이러한 선민 나라의 모습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혼밥혼술함으로써 마음이 배불러서 자신에게 허락된 힘과 특권과 풍요를 백성들을 위해 사용해야 했던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지면의 사람들을 보살피고 먹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똑같이 나누어주셨다면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가 생겨날 이유도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꼭대기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섭리를 흐르게 하는 동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것처럼 똑같은 물자를 가지고 똑같이 쓴다면 서로 나눌 필요도 없고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 교류도 필요치 않습니다. 반대로 선민의 나라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체가 이웃사랑에 동참하는 사랑의 단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선민들은 하나님으로 혼밥혼술하기를 멈추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풍요는 이방나라와 마찬가지로 피라미드의 정점을 향해 편중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혼밥혼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만나기에 앞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취하는 혼밥혼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혼밥혼술만 하면 이웃사랑과 제도적 문제들도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재벌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재벌그룹의 회장님들이 하나님으로 혼밥혼술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봅니다. 회장님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가족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부당한 일을 하지 않는 부모님을 보며 그 자녀들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회사에 나가서도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직원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회사 전체가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개선시키려고 재벌들을 설득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분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구조나 법을 고쳐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미 세상은 지상낙원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수 없는 이유는 마음이 고픈 상태에서는 타인을 착취해서라도 채우고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의 배부름을 이루는 혼밥혼술은 우리 기독교인들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 혼밥혼술하는 것을 사회의 흐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감을 자아내기 위해 노력할 과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다만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은 이렇게 피라미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본래 이러한 세상적인 피라미드에 속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피라미드에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혼밥혼술을 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피라미드의 구조 속으로 뛰어들어서 위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조차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의 외침이 아니고서는 백성들이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혼밥혼술을 받아들일 수단이 없었습니다. 물론 외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지라도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해 외침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외치는 자들이 피라미드에 속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계를 보면 피라미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 명 이상 되는 교회의 목회자들, 천 명에서 만 명 목회자들, 삼백 명에서 천 명까지, 그리고 백 명에서 삼백 명까지 나머지는 시골교회나 상가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교회는 다 죽어가고 대형교회만 점점 커져서 역삼각형 모양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목사님들이 혼밥혼술해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기운으로 취하기전 까지는 단 한 명의 교인에게도 전화도 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서 떠올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일단 교인이 한 명이든 만 명이든 교인들 앞에 나설 때는 무조건 혼밥혼술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취해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고픈 상태에서는 반드시 교인을 잡아먹게 되고, 고픈 상태에서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왕을 만나면 왕까지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왕의 비위를 맞추어서 고픈 배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왕을 향하여 하나님을 먹고 배부르라고 외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을 지원한다는 말만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백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제도적인 잘못을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각자가 혼밥혼술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주대하고 있으면서 혼밥혼술을 시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앉혀놓고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도록 혼밥혼술의 시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혼밥혼술을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것뿐입니다. 굶주린 상태로 이 세상을 향해 나가려는 나에게 블록을 치는 일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혼밥혼술을 해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취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사람을 만나려면 화장실에라도 들어가서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거래를 통해서 내 마음 속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거래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때에 상대방에게도 가장 좋은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도둑놈들끼리도 깡패들끼리도 서로 의리를 지키면서 만나면 기뻐하고 화합합니다. 이런 식의 화평은 화평이 아니고 온전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마스터키는 하나님으로 혼밥혼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아예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마음의 고픔을 안고 세상으로 사람을 향해 뛰어가려는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죽게 하셔서,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간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혼밥혼술하여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취한 상태에서만, 사람을 만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인간관계로만 삶을 채워갈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